

보도일시	2021. 12. 29.(수) 조간 * 인터넷 2021. 12. 28.(화) 14:30 이후 / 총 2쪽		
담당부서	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	부장 팀장	장상일 최 울 052-704-7561 052-704-756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, <http://www.comwel.or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근로복지공단, 대한적십자사와 산재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산재로 인하여 심리불안을 겪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의 심리 안정 지원 -

-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대한적십자사(회장 신희영)와 '21.12.28.(화) 「산재노동자 마음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」 을 체결했다.
 -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산재노동자가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-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신속·공정한 보상, 신체기능 회복, 심리안정 및 신속한 사회·직장복귀를 위하여 의료·사회·직업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 - 특히, 심리불안 산재노동자를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4,700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, '19년부터는 산재트라우마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.
- 한편,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경험자의 심리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'16년부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(전국 17개소)하고 있으며,
 - 지난 5년 동안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, 재난 경험자 등 약 4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했다.

- 앞으로 공단은 심리불안 산재노동자를 대한적십자사에 연계하여 더욱 많은 산재노동자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,
- 대한적십자사는 기존 지원 대상을 산재노동자로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.
-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재해 이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심리불안을 해소하고, 고객 맞춤 재활로 체계적인 직업복귀 지원 등 상호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산재노동자의 일하는 삶을 보호해 나가는 노동복지 허브의 역할을 한층 더 충실하게 수행할 것”이라고 의지를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 장상일 부장(☎ 052-704-7561)에게 연락해
주시기 바랍니다.